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이번 런던 투어는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런던 시티와 함께
옛 런던을 상징하는

웨스트민스터 시티를
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국 의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티는요
1평방마일 정도의 면적으로

런던 시티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이곳에는 다섯 명소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거주하고 있는
버킹엄 궁전

그리고 다우닝 가 10번지로
호칭되는 영국 총리공관

그리고 빅 벤으로 상징되는
영국 의회 의사당이

영국 정치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는 명소지요

또 의사당 북쪽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또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는
중심과 변두리가

위계적으로 배열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영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어에서는요

2명의 철학자를 소환합니다.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영국형 민주주의를 설계한
두 인물입니다.

영국 민주주의를 완성한
영국 혁명은

보통 2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전개된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첫 단계는요, 17세기 전반에
일어나는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영국 내란이 있고요

이 단계는 17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명예 혁명입니다.

제도로서의 영국형 민주주의를
잇기 위해서는

그 기본 설계도를 작성한 두 정치
철학자의 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홉스를 따라서 산책하면요
영국 내란의 혼란기에

그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인공인간

근대 시민 국가의 꿈이
펼쳐집니다.

로크를 추적하면
입헌 민주주의 국가

영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은요

국가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사회 계약
사상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투어는
스트랜드 거리에서 출발해서

웨스트민스터 관광 명소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좋습니다.

스트랜드 거리는요

런던 시티 쪽에서

플리트 거리와 함께 런던 도심을
관통하는 간선 도로입니다.

왜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철학 투어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국 혁명의
두 사상적 주역인

홉스와 로크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트랜드 거리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지금은 이전한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경계 표시인
템플 바까지 이어지는

템스강 북쪽 도로입니다.
이 길은 템스강과 나란히 달립니다.

스트랜드라는 어원도 '강의
가장자리'라는 뜻이라고 하죠?

스트랜드 거리에는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영국의 상류 계급들이 거주하는
대저택들이 경쟁하듯 세워졌는데요

그 흔적은 서머셋 공작이
거주했던

화려한 서머셋 하우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귀족의 장원이
허물어지거나

호텔 또는 극장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홉스와 로크는
귀족이 아닙니다.

홉스는 시골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로크는 변호사 출신
지방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좀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홉스와 로크는 가신, 또는
궁정 학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치 사상이
귀족 후원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 그들이 갔던 삶이
후원자의 정치적 붙임과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홉스와 로크가 스트랜드 거리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귀족 후원자 집이
스트랜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홉스는 **158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라틴어로 쓴 자서전에서

나는 공포라는 쌍둥이와 함께
태어났다고 적었는데요

이는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영국 섬 남부 해안에 나타났을 때

홉스의 어머니가
공포에 사로잡혀

칠삭둥이 홉스를 조산했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난세였죠.

밖으로는 에스파냐와 전쟁을 겪었고요
안으로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서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싸웠던
내전의 시기였습니다.

리바이어던에서 나오는 홉스의
유명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이 갈등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사이에

내전으로 전개되었고요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청교도 중심의 의회파가

찰스 1세의 왕당파에
승리하면서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화정은 막을 내립니다.

이 시기를 영국사에서는
'커먼웰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요즘 영 연방

커먼웰스 오브 네이션스
(Commonwealth of Nations)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 내란은 때로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전을 승리로 이끈 크롬웰 군대가
청교도 중심으로 축성이 되었고

또 청교도들은 대부분 의회파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홉스의 후원자 카벤디쉬 가문은
찰스 1세를 지지한 왕당파였습니다.

크롬웰 시대에 카벤디쉬 가문은
취 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다가

유럽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홉스도 그랬죠.

11년간 파리에 있다 1651년
책 한 권을 들고 런던으로 귀국합니다.

그 책이 <리바이어던>입니다.

한편 로크는 1632년에
태어났습니다.

로크는 내전의 혼란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죠.

찰스 1세가 처형될 때 그는
학생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죠.

웨스트민스터 학교는 사원 안에 있는
유명한 사립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찰스 1세가 처형된
화이트홀 궁전은 지척입니다.

아마도 학교 안에 높은
건물에 서면

그 참수 장면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크는 청교도 출신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의회파 지식 그룹 속에서 성장했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의회파의 맹장 샤프츠베리 백작의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주치의이기도 했습니다.

로크에게 스트랜드 시대는
영국 혁명의 최종 종착지인

명예혁명으로 가는 길을 설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홉스와 로크는 서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영국 혁명을 잇는 두 개의
시선을 제공합니다.

화이트홀 궁전은 웨스트민스터
명소에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그런데 화이트홀 궁전은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화재로 소실되고요
뱅크링 하우스만 남아있습니다.

이 궁을 세운 찰스 1세는 그렇게
뱅크링 하우스를 사랑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광장
앞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사실 왕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또는 나라 안에서도 권력자들
사이에 벌어진

파워 게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왕의 목을 자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왕 찰스 1세는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것은 혁명이 아니야, 반역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는 혁명이라는
말도 사전에 없던 시절이니깐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이란 말도 당연히 없죠.

의회는 흔히 근대에 탄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중세의 유산입니다.

대학과 함께 대표적인
중세의 발명품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마그나 카르타 아닙니까?

대헌장이라고도 그러죠?

이것은 왕과 의회 사이에
체결된 헌장입니다.

물론 중세에서 의회는
근대 의회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중세 의회가
근대 의회로 바뀌는 과정

그 드라마틱한 과정이 영국 혁명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왕과 의회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

의회는 대체로 왕권 침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런데 17세기 들어서
양자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바뀝니다.

1628년 권리 청원이
대표적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걷지 말 것을

찰스 1세에게 청원한 것이
권리 청원이죠.

여기에 찰스 1세는 의회 해산으로

맞붙을 놓습니다.

왕의 의회 해산권은 오랫동안 인정돼 온 관습이었습니다.

왕은 의회를 해산한 다음 런던의 대상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습니다.

할 수 없이 찰스 1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의회는 왕의 요청을 즉각 거부해 왔죠.

또 왕은 의회를 곧바로 해산합니다.

장군 명군인가요? 영국 역사에서는 이것을 단기 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책을 찾지 못하자 찰스 1세는 다시 의회를 소집하고

이때부터 왕과 의회는 13년간 긴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기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의회 기간 동안에 의회 구성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과세는 거부하지만 그래도 왕의 권한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왕당파와

이 기회에 왕의 권한을 박탈하고

의회 권력을 세우자는 의회파로 쪼개집니다.

그 과정이 내전과 영국 공화정의 성립

왕정복고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17세기 영국 혁명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영국 혁명은 왕과 의회의 관계를 매개로 살펴보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됩니다.

영국 혁명의 발단은 왕과 의회의 팽팽한 긴장에서 점화되어서

왕과 의회가 하나가 되는 동거에서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과 의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영국의 정치 체제에서 왕은
의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왕과 의회 두 정치 권력은 내전 기간
치열하게 싸웠지만

지금은 하나의 몸통이 된 거죠.

지금도 영국에서는 법령을
퀸즈 빌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왕이라 그렇지 남자 왕이라면
킹스 빌이라고 부르죠.

따지고 보면 영국형 민주주의는
참 독특합니다.

왕과 민주주의의 공존
정말 영국다운 발상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를
셋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의
권력을 가지는 왕정

그리고 소수가 권력을
가지는 귀족정

그리고 다수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민주정이 그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 세 가지 정치 체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민주정,
이 발상은

오늘날 입헌 민주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습니다.
영국형 민주주의 제도는

300년이 넘도록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영국 내란 당시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서로 경멸적으로 부르던 용어인
'토리'와 '휘그'라는 이름이

지금은 보수당과 자유당 또는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변형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국가
프랑스에서는 그 사이에

헌정 체제가 계속 바뀝니다.

공화정에서 왕정, 왕정에서 공화정
5번이 바뀌었나요?

우리나라는 더 심했습니다.
70년 남짓 지나는 동안

헌정 질서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당들은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에 비해 영국의 정치 제도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국 민주주의 장수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단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옥스퍼드 편에서

홉스와 로크의 정치 철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스퍼드에서 뵈겠습니다.